

평택시의 도시경쟁력과 삶의 질

이곤수 · 김병규
동아시아연구원 · 대구대학교

2011년 12월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동아시아연구원(The East Asia Institute: EAI)은
2002년 5월 설립된 민간 연구기관입니다.
EAI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개방된 사회를 발전시킴으로써 평화로운 국제 사회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한 정책 제안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EAI는 정책 이슈에 관하여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EAI는 등록된 고유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 2011 EAI

EAI에서 발행되는 전자출판물은
오로지 비영리적 목적을 위해서만 제공됩니다.
또한 내용의 수정을 허용하지 않으며
온전한 형태로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어떠한 상업적 목적을 위한 복사와 출판은 엄격히 금지합니다.
EAI 웹사이트가 아닌 다른 곳에 본 출판물을 게시할 시에는
사전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AI의 모든 출판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습니다.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서울 중구 을지로4가 310-68 삼풍빌딩 909호
Tel. 02 2277 1683
Fax 02 2277 1684



평택시의 도시경쟁력과 삶의 질

이곤수 · 김병규

I. 서론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도시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무한 경쟁의 세계화 흐름 속에서 자국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뉴욕, 워싱턴, 파리, 밀라노, 바로셀로나 등과 같이 도시 인프라와 비즈니스 환경을 갖춘 대도시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독특한 강점을 가지는 중소도시들을 발전시키는 다각도의 전략이 펼쳐지고 있다. 국가간 경쟁뿐만 아니라 한 국가 내에서도 도시간 혹은 지역간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 이후 모든 지방정부들이 해당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도시경쟁력이 높으면 외부로부터 기업 입주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인구유입이 증가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지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도시는 쇠락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도시경쟁력 강화는 도시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최유진 · 홍준현 2007).

그런데 경쟁력 있는 도시란 무엇이며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가? 이와 같은 의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특정 도시가 보유하고 있는 경쟁력의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개별 도시가 지니고 있는 여건이 면밀하게 진단되어야만 효과적인 도시발전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1990년대 이후 도시경쟁력 평가를 위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이들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글로벌 경쟁 환경과 관련된 국제화 도시지표에 비중을 두고 국내외 주요 도시의 국제적 도시경쟁력을 비교 평가(강승호 2007; 강승호 · 김중엽 2009; 김원배 외 2007; 김현주 외 1997; 임병호 2007)하거나 국내 도시들을 대상으로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고 개별 도시나 권역의 경쟁력을 평가(권창기 외 2008; 김병수 · 여홍구 2010; 이상대 외 2008)해 왔다. 그런데 일정 지역의 단일 도시들의 경쟁력 분석이나 전국 차원의 도시경쟁력 평가에 내재되는 문제는 서로 상이한 규모의 도시들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이다. 단순



히 도시간 서열을 매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전혀 다른 수준의 도시들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중소도시 경쟁력을 과소평가하거나 혹은 대도시 경쟁력을 과대평가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더욱이 우리의 경우 대도시와 수도권 중심으로 불균형성장을 해 왔다는 점에서 규모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도시경쟁력 진단은 평가결과의 왜곡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비교의 준거집단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각 도시가 가지는 강점이나 비교우위 등 경쟁력 요소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규모의 도시들을 준거 대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에서 본 연구는 평택시를 사례로 도시경쟁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평택시는 경기도 최남단에 위치한 면적 455,180,303㎡, 인구 423,441명(2011년 6월 현재)의 농복합도시이지만, 2008년도 추계 지역내총생산(GRDP)이 14,240,505백만원, 1인당 GRDP 17,688천원으로 급성장하는 산업도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¹ 그리고 2006년 주한미군기지 평택확장이전 결정과 더불어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 삼성전자와 LG전자 투자유치, 일본기업들의 진출 등으로 신수종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대중국교역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는 평택당진항을 중심으로 한 황해경제자유구역도 개발 중에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가경쟁력 제고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평택시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논의가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가 생산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평택시의 경쟁력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이 글에서는 도시경쟁력 평가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평가지표를 구성한 뒤, 인구 30만 명 이상 100만 명 미만 국내 중간규모 도시군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평택시의 도시경쟁력을 비교·평가하고, 도시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II. 도시경쟁력 평가의 이론적 배경

국가경쟁력이 주로 경제적 차원에서 다루어진 것과 달리, 도시경쟁력은 보다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다. 기본적으로 도시경쟁력은 여러 도시들 간의 경쟁을 전제로 한 비교 우위를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도시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힘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Lever(1993)는 다국적 기업이 국경을 초월하여 새로운 공장과 사무실 입지를 모색하는 가운데 기업투자, 국제금융기관, 국제기구, 이벤트를 유치하기 위한 도시간 경쟁상황에서 "투자와 인구를 끌어들이는 힘"인 도시경쟁력에는 도시의 경제적 특성뿐만 아니라 문화와 오락시설, 환경, 주택, 교육 및 보건 등의 서비스 수준이 포함된다고 보았다. 국내연구들에서도 도시경쟁력은 "도시의 경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인간개발로 연계시킬 수 있는 능력이 타 도시에 비하여 비교 우위에 있는 정도"(김현주 외 1997)로 보는 시각에서부터 "한 지역이 가지고 있으며 동원 가능한 인적·



물적 자원과 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기업, 도시 주민이 개별적으로 혹은 삼위일체가 되어 만들어 내는 창출요소로서 도시의 산업경쟁력, 도시사회의 인적 자원과 통합력 등 도시의 총체적 잠재력"(최유진 외 2007) 혹은 "한 도시가 처한 자연적·인위적 환경 속에서 이 도시가 축적한 사회문화적·경제적·물리적 기반과 이러한 기반 위에서 도시 활동의 주체인 시민, 기업, 도시정부가 미래의 가치를 창조해 낼 수 있는 역량의 총체"(강승호 2008) 등으로 규정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개념정의가 제시되고 있지만 도시경쟁력 개념의 요체는 "인구와 자원을 유지하기 위한 비교 우위와 유인력"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이는 경제, 재정, 문화, 삶의 질 등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될 수 있다. 도시의 목표는 단순히 산업경쟁력 강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이나 지속가능한 발전과 같은 궁극적 가치에 있다. 따라서 도시발전은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기능적 특성을 유지 발전시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김원배 외 1997). 결국 도시가 만들어내는 생산과 삶의 질에 관련된 성과가 도시경쟁력을 결정하게 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시스템이 적절히 구축되어야만 도시의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김중표 2009). 하지만 도시경쟁력의 원천을 어떻게 규정하고 지표화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최유진 외(2007)는 도시경쟁력 측정을 위해 "도시의 내부 효율과 외연능력이 타 도시보다 우월한 상태"라는 협의의 개념으로 접근한다. 김정호(2008)는 이를 좀 더 확장하여 시민, 경제 및 산업, 도시기반시설, 환경, 거버넌스의 5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지역경쟁력 평가차원의 실증분석 연구들은 흔히 '지속가능성'이나 '삶의 질'이라는 개념적 틀을 적용하여 도시경쟁력을 이해하고, 일정 규모의 도시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경제·문화 및 각종 도시기반 지표를 사용하여 도시경쟁력을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표적으로 유재운·조판기(1996)는 주어진 자연환경조건과 과거로부터 축적된 도시의 기반 및 이를 발전, 활용하는 시민, 기업, 정부 등 도시주체의 역량으로부터 도시경쟁력이 비롯된다고 간주하면서, 도시의 기반을 사회·문화적 기반, 경제기반, 물리적 기반으로 분류하고 여기에 도시주체역량과 자연환경을 추가하여 5개 부문에서 15개 지표를 선정하였다. 한국능률협회(1999)는 국내 중소도시의 경쟁력 평가를 위해 도시경영자원 및 기반, 도시내부 경영활동, 도시경영성과 3개 평가부문의 46개 지표를 활용하였고, 대한민국도·도시계획학회(2001)는 삶터, 일터, 놀터, 숨터의 4개 부문에서 45개 지표를 이용하였고, 대전발전연구원(2007)은 인구, 도시경제력, 연구개발역량, 교육, 문화여가, 도시기반, 사회복지, 환경안전, 국제화, 시민의식의 10개 부문에서 27개 측정지표를 활용하였고, 임병호·이재우(2008)는 이 10개 부문의 구체적인 측정지표를 71개로 확대하였다. 이상대 외(2008)는 생산성, 경제성장, 고용, 토지자원, 사장규모, 지식수준의 6개 부문 48개 지표를 사용하였고, 권창기 외(2008)는 물리적 지표, 경제적 지표, 사회문화 지표의 3개 부문 31개 지표를 활용하였으며, 김중표(2009)는 교육복지, 문화 관광, 경제, 물리적 기반, 도시주체역량, 자연환경의 6개 부문 49개 지표를 선정하여 도시경쟁력을 측정하였다. 이에 반해 정성적 분석을 시도한 김원배 외(2007)는 인적 지식 자원, 경제구조, 공간 인프라 자원, 사회문화적 자원의 4개 부문에



서 8개 세부지표만을 이용하였다.

이처럼 도시경쟁력 개념이 가지는 포괄성 때문에 도시경쟁력의 구성요소와 측정지표는 연구자의 관점이나 강조점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측정방법에 있어서는 정성적 연구를 제외한 정량적 연구들 대부분이 거의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즉 대부분 측정지표들에 대한 표준화 점수를 이용하거나 인자분석을 실시하여 인자점수를 산출 한 후 인자별 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최종적으로 도시경쟁력 점수를 측정하는 종합평가를 시도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민감한 문제는 가중치의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이다. 사실 동일한 도시경쟁력 지표를 이용한 평가라 하더라도 지표별 가중치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가중치 설정을 위해 통계적 방법이나 아니면 전문가조사의 2가지를 이용하고 있다. 인자분석을 이용한 통계적 방법은 자료의 속성 자체에 기인한 가중치 설정이며, 전문가 설문조사에 기초한 AHP 분석은 주관적 접근이라는 점 때문에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임병호 · 이재우 2008).

[표 1] 도시경쟁력 평가의 측정 지표 및 측정방법

연구	측정치표	측정방법
유재윤·조판기(1996)	5 개 부문(사회문화, 경제, 물리적 기반, 도시주체역량, 자연환경) 15 개 지표	인자분석, 가중치 적용
한국능률협회(1999)	3 개 부문(도시경영자원 및 기반, 도시내부 경영활동, 도시경영성과) 46 개 지표	표준화, 가중치 적용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2001)	4 개 부문(삶터, 일터, 놀터, 숨터) 45 개 지표	표준화, 가중치 적용
대전발전연구원(2007)	10 개 부문(인구, 도시경제력, 연구개발역량, 교육, 문화여가, 도시기반, 사회복지, 환경안전, 국제화, 시민의식) 27 개 지표	표준화, 가중치 적용
김원배 외(2007)	4 개 부문(인적 지식 자원, 경제구조, 공간인프라 자원, 사회문화적 자원) 8 개 세부지표	정성적 분석
이상대 외(2008)	6 개 부문(생산성, 경제성장, 고용, 토지자원, 시장규모, 지식수준) 48 개 지표	표준화, 가중치 적용
임병호·이재우(2008)	10 개 부문(인구, 도시경제력, 연구개발역량, 교육, 문화여가, 도시기반, 사회복지, 환경 및 안전, 국제화, 시민의식) 71 개 지표	표준화, 가중치 적용
권창기 외(2008)	3 개 부문(물리적 지표, 경제적 지표, 사회문화 지표) 31 개 측정지표	인자분석, 가중치 적용
김중표(2009)	6 개 부문(교육 복지, 문화 관광, 경제, 물리적 기반, 도시주체역량, 자연환경) 49 개 지표	인자분석



결국 도시경쟁력을 적절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가지표의 선정과 가중치 설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일한 도시들을 평가하더라도 어떤 평가지표를 가지고 측정하는가에 따라 도시들의 경쟁력 순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평가지표의 가중치 부여는 논란의 여지가 크므로 최대한 객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평가모형의 구성에는 대표성, 자료 구득성, 비교객관성, 반복성, 단순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대표성은 부문별 관심영역을 구체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선정하는 것이며, 자료구득성은 기술적으로 측정가능하며 현실적으로 자료입수가 용이해야 한다는 것이며, 비교객관성은 도시간 비교가 가능하고 통일성이 유지할 수 있는 항목을 선정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반복성은 시간적 변화나 지역적 편중적용과 무관한 신뢰성 높은 항목을 선정하는 것이며, 단순성은 지표 항목의 의미가 가급적 간명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발전연구원 2007; 한국능률협회 1999).

III. 방법론

1. 도시경쟁력 평가 모형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검증된 지표를 참조하되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지표 선정기준에 입각하여 평가모형을 구성하였다. 도시경쟁력 평가를 위한 지표체계는 물리적 기반지표, 경제적 지표, 사회·문화적 지표의 3부문으로 구성하고 세부지표들을 구체화하였다. 여기에는 평가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의 측면에서 도시경쟁력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도 동일한 측정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둘째, 정확성과 객관성의 차원에서 편견이나 고정관념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셋째, 명확성의 차원에서 분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지표를 중심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점, 끝으로 현실적으로 평가에 적용하기 쉽고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환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준거 기준으로 삼았다.

선정된 측정지표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물리적 기반 지표에는 교통, 에너지, 상하수도처리시설, 공무원 수와 관공서 수 등이 활용되었다. 교통의 경우 편리성을 대표할 수 있는 도로포장율과 주차장면적을 고려하였으며, 에너지와 상하수도처리와 관련해서는 상수도보급률, 하수도보급률, 쓰레기처리량, 에너지사용량, 가스공급량을 고려하였다. 또한 행정서비스의 전달의 주체라 할 수 있는 공무원 수와 행정의 접근성 지표인 관공서 수를 행정서비스기반 측정에 고려하였다.

경제적 기반 지표는 도시의 규모와 주요경제지표, 산업구조 및 생산성지표와 관련된 지표들을 검토하였다. 도시규모를 측정하기 위해 인구증가율, 주택보급률, 건축허가면적을 고려하였고, 주요 경제지표에는 소득과 관련된 지표로 1인당 지방세와 1인당 지역총생산, 고



용과 관련하여 일자리확보율을 고려하였다. 산업생산성에 관한 지표로는 고용자 1인당 지역총생산, 산업구조 지표로는 3차 산업 비중, 사업체 증가율, 환경오염배출시설 수를 고려하였다. 그리고 기타 경제지표로 1인당 금융기관수를 포함하였다.

사회·문화적 기반 지표에는 교육, 문화, 의료·보건·복지, 치안, 국제화와 관련된 지표들을 검토하였는데, 우선 교육 지표로는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 초·중·고등학생 1000명당 교원 수를 공교육 지표로 고려하였고, 여기에 사교육의 지표인 사설학원 강의실수와 보육시설확보율을 고려하였다. 문화 지표와 관련해서는 공연시설확보율, 공공도서관 장서 수를, 의료·보건·복지지표로는 1인당 의료인력, 1인당 위생업소 수, 인구천명당 사회복지시설생활인수, 사회복지시설확보율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치안 관련 지표로는 범죄발생률을, 국제화 지표에는 문화인종적 다양성을 포함하였다.

[표 2] 도시경쟁력 평가의 측정 지표 구성 및 자료 수집

부문	지표	세부지표	산식 및 단위	출처
물리적 지표	교통	도로포장률	도로포장률(%)	도시연감
		1인당 주차장 면적	주차장 면적/인구 수(m ²)	도시연감
	에너지, 상수도 처리시설	상수도 보급률	상수도 보급률(%)	도시연감
		하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도시연감
		1인당 쓰레기처리량	쓰레기 처리량/인구 수(톤)	도시연감
		1인당 에너지사용량	에너지(전기/가스/수도) 사용량/인구 수	시통계연보
		1인당 가스 공급량	가스 공급량/인구 수(1000m ³)	도시연감
	행정	1인당 공무원 수	공무원 수/인구 수	도시연감
		1인당 관공서 수	관공서 수/인구 수	도시연감
	경제적 지표	도시 규모	인구증가율	2009년 인구/2008년 인구(%)
주택보급률			주택보급률(%)	도시연감
건축 허가 면적			건축 허가 면적(km ²)	도시연감
소득		1인당 지방세	지방세/인구 수(원)	재정고
		1인당 GRDP	GRDP/인구 수(백만원)	통계청
고용		일자리 확보율	사업체 고용자 수/경제활동 인구(%)	통계청
산업생산성		고용자 1인당 GRDP	GRDP/사업체 고용자 수(백만원)	통계청
산업 구조		3차 산업 비중	3차 산업 고용자 수/총 고용 자수 (%)	시통계연보
		사업체 증가율	2009년 사업체 수/2008년 사업체 수(%)	통계청
		환경오염 배출시설 수	환경오염 배출시설 수	시통계연보
기타	1인당 금융기관 수	금융기관 수/인구 수	도시연감	
사회문화 적 지표	공교육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도시연감
		중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중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도시연감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도시연감



	초등학생 천명당 교원 수	초등학생 천명당 교원수	도시연감
	중등학생 천명당 교원 수	중등학생 천명당 교원수	도시연감
	고등학생 천명당 교원 수	고등학생 천명당 교원 수	도시연감
사교육	1 인당 사설학원 강의실 수	사설학원 강의실수/인구 수	도시연감
	보육시설 확보율	유아천명당 보육시설 수	통계청
문화	공연시설 확보율	1 인당 좌석 수* 10,000	시통계연보
	전시시설 확보율	1 인당 전시장 수* 10,000	시통계연보
	공공도서관 장서 수	공공도서관 장서 수	도시연감
의료·보건 ·복지	1 인당 의료인력	1 인당 의료인력	도시연감
	1 인당 식품위생업소 수	1 인당 식품위생업소 수	도시연감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수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수/인구 수*1,000	도시연감
	사회복지시설 확보율	1 인당 사회복지시설 수*100,000	시통계연보
치안	범죄발생률	범죄발생 수/인구 수	시통계연보
국제화	문화인종적 다양성	천명당 외국인거주자 수	시통계연보

평택의 도시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한 비교대상 도시군은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30만 이상 100만 미만의 20개의 중간규모의 도시로 선정하였다. 모든 도시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비교평가의 객관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지표의 분석과정에 있어서도 평가지표의 설명력을 측정하는데 있어 적절한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 도시들의 지표 값을 포함시킴으로써 평가의 타당성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그 외에도 현실적으로 많은 소규모 도시들은 필요한 통계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도시간 경쟁력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도시들을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와 광역시 및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제외한 인구 30만 이상~100만 미만의 도시들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평가대상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표 3]과 같다.

[표 3] 평가대상도시의 지역별 분포

구분	도시명
경기도	화성, 평택, 용인, 시흥, 안양, 고양, 광명, 남양주, 안산, 부천
충청북도	천안, 청주
전라북도	익산, 전주
전라남도	여수
경상북도	포항, 구미
경상남도	창원, 김해, 진주,



2. 도시경쟁력 측정방법

이 연구에서 사용된 도시경쟁력점수 측정방법은 여러 유사성이 있는 지표들로부터 설명력 인 높은 몇몇의 요인을 추출해 내는 다변량 통계기법인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활용하였다. 분석은 구체적으로 다음의 단계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림 1] 도시경쟁력의 측정 단계 및 방법



1 단계: 측정변수의 표준화(Z-Score)

선정된 평가지표들의 측정단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도시간의 통합적인 비교를 위해서는 이를 표준화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많이 활용된 표준화방법인 Z-Score값을 이용하였다. 각각의 측정변수의 표준화 점수(Z-Score)는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산출된다.²

$$Z_{ij} = \frac{X_{ij} - \bar{X}_i}{\delta}$$

i=지표, j=도시

2 단계: 요인분석

각 부문별로 고려된 여러 가지 측정변수들의 공통된 주요요인을 추출하는 것으로 추출된 인자들이 전체자료의 분산을 설명하는 비중(고유치) 1이상인 인자들을 채택하였다.

3 단계: 요인회전



이 분석에서는 일반적인 방법인 직각회전(VARIMAX)방법을 사용하였다. 요인회전은 요인 분석을 통해 얻어진 각 요인적재량을 요인 축에 최대한 적재토록 하는 것으로 요인의 해석을 용이하게 해준다.

4 단계: 요인점수 산출

요인점수는 요인회전 결과 구해진 요인들에 대한 각 지표의 요인적재량 (factor score coefficient)을 각 변수의 표준화 점수와 곱한 값들의 합이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F_j = \sum_{i=0}^p W_{ji} X_i = W_{j1} X_1 + W_{j2} X_2 + W_{j3} X_3 + \dots + W_{jp} X_p$$

F_j =j 번째 요인, W_j =요인점수의 계수, p =변수의 수, X_i =변수

5 단계: 도시경쟁력점수 계산

부문별 도시경쟁력 점수를 산출하는 단계로 앞에서 측정된 부문별 도시의 요인점수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즉, 각 부문별로 도시의 요인점수를 통계적 설명력을 나타내는 고유치와 곱한 후 모두 더하고 이 값을 고려된 변수의 수로 나누는 방법으로 부문별 경쟁력 점수를 산출하였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cc1 = \frac{\sum_i^4 c_i w_i}{9} \quad cc2 = \frac{\sum_i^5 c_i w_i}{11} \quad cc3 = \frac{\sum_i^5 c_i w_i}{12} \quad , ,$$

$cc1$ =물리적 경쟁력점수, $cc2$ =경제적 경쟁력점수, $cc3$ =사회·문화적 경쟁력점수
 c_i =요인점수, w_i =요인별 고유치(통계적 설명력)

VI. 분석결과

1. 도시 경쟁력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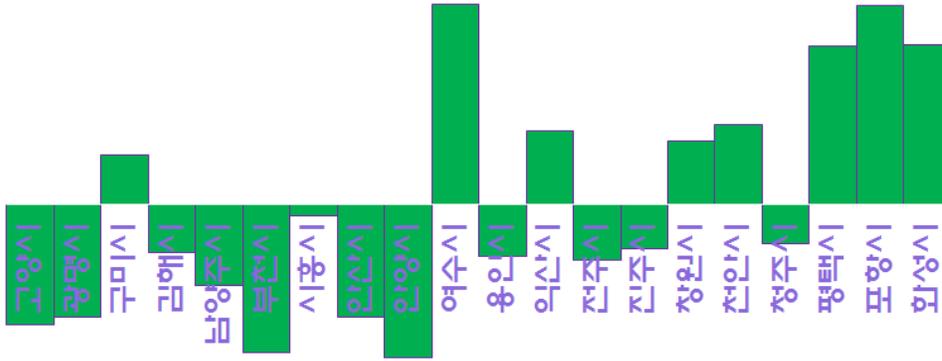
도시경쟁력 평가결과를 물리적 경쟁력, 경제적 경쟁력, 사회문화적 경쟁력의 3개 부문별로 검토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물리적 경쟁력의 경우 여수, 포항, 화성, 평택, 천안, 익산, 창원, 구미, 시흥, 청주의 순으로 우위에 있었고, 반면 안산, 광명, 고양, 부천, 안양 등 경기도의 다른 도시들이 하위권을 형성하였다. 평택의 경우 물리적 기반은 타 도시들에 비해 비교적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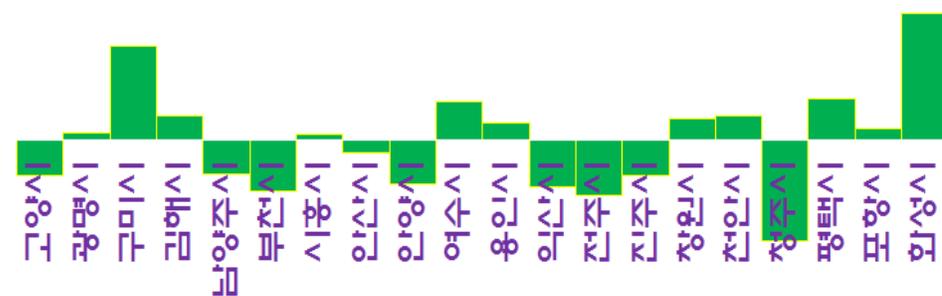
가되었다.

[그림 2] 물리적 경쟁력의 비교



둘째, 경제적 경쟁력을 보면 화성, 구미, 평택, 여수, 천안, 김해, 창원, 용인, 포항, 광명 순으로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익산, 전주, 청주와 경기도의 안양, 부천이 하위권을 형성하였다. 화성, 평택, 용인, 천안과 같은 수도권의 일부 신도시들과 구미, 여수, 포항과 같은 공업 중심도시들이 경제적 경쟁력이 강한 반면, 익산, 전주, 청주와 같은 비 수도권의 전통적인 지방도시나 서울과 접해 있는 안양, 부천이 낮은 경제적 경쟁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초점인 평택의 경우에는 경제적 경쟁력 부문에 있어서도 타 도시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림 3] 경제적 경쟁력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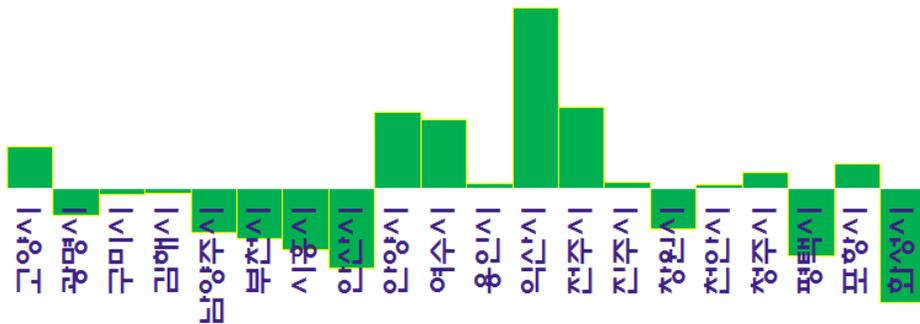


셋째, 사회문화적 경쟁력 부문에서는 익산, 전주, 안양, 여수, 고양, 포항, 청주, 진주, 용인, 천안 순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천, 시흥, 평택, 안산, 화성이 하위권을 형성하였다. 특이한 사항은 경기도의 다수 도시들이 하위권에 있으며, 특히 평택의 경우 사회문화적 경쟁력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 전주, 여수, 포항, 청주, 진주와 같은 비 수



도권 지역의 도시들은 교육과 문화의 지방중심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회문화적 경쟁력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수도권 중간 규모 도시들의 사회문화적 경쟁력이 취약한 이유는 서울, 인천, 수원 등 강력한 문화적 중심지인 대도시의 견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림 3] 경제적 경쟁력의 비교



그렇다면 분야별 경쟁력과 별도로 전반적인 도시경쟁력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를 평가하기 위해 세 분야 경쟁력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앞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종합적 평가에서 고려해 할 것은 가중치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 전반적인 도시경쟁력의 내생변수인 물리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경쟁력의 영향력은 어떻게 가중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측정방법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분야별 경쟁력 점수의 산출에는 추출된 요인들의 통계적 설명력을 가중치로 적용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인 도시경쟁력 점수에는 통계적 설명력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전문가조사를 이용한 주관적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7; 임병호 외, 2008; 경기개발연구원, 2008). 본 연구에서는 이들 기존 연구에서 개발된 분야별 가중치를 이용하되, 민감도 분석을 병행하였다. 도시경쟁력 점수의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각 분야의 경쟁력이 전반적인 도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동등하다고 가정하고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산출한 종합적 도시경쟁력을 기준으로 하면, 여수, 포항, 익산, 화성, 구미, 평택, 천안, 창원, 김해, 용인 순으로 경쟁력이 높고, 광명, 청주, 남양주, 안산, 부천의 경쟁력이 낮게 평가되었다. 분석대상인 평택시는 전체 6위로 평가되었다.

다음으로, 물리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경쟁력 부문에 서로 다른 가중치가 부여하였을 경우이다.³ 가중화된 결과에 따르면, 종합적인 도시경쟁력은 여수, 화성, 포항, 구미, 익산, 평택, 천안, 창원, 김해, 용인 순으로 상위에 있었고, 안양, 남양주, 청주, 안산, 부천이 하위에 위치하였다. 동일 가중치를 부여한 경쟁력 점수와 가중화된 경쟁력 점수 결과를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으나 일부 도시의 경우 순위의 변동이 나타난 경우도 있다.⁴ 평택시의 경우에는 가중치 부여 전후 모두 6위로서 동일한 경쟁력 순위를 차지



하였다.

[표 4] 종합적 도시경쟁력의 순위

순위	가중치 없는 경쟁력점수		가중화된 경쟁력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1	여수시	1.4869	여수시	0.485415
2	포항시	1.0225	화성시	0.36635
3	익산시	0.9934	포항시	0.327832
4	화성시	0.9191	구미시	0.324823
5	구미시	0.8686	익산시	0.275653
6	평택시	0.5468	평택시	0.200507
7	천안시	0.5202	천안시	0.177089
8	창원시	0.1700	창원시	0.068058
9	김해시	-0.0428	김해시	-0.00056
10	용인시	-0.0467	용인시	-0.00596
11	전주시	-0.1700	전주시	-0.08938
12	시흥시	-0.3590	시흥시	-0.10571
13	진주시	-0.4068	진주시	-0.1473
14	안양시	-0.4954	광명시	-0.17026
15	고양시	-0.5054	고양시	-0.18201
16	광명시	-0.5569	안양시	-0.1856
17	청주시	-0.8183	남양주시	-0.2823
18	남양주시	-0.8463	청주시	-0.31248
19	안산시	-1.0165	안산시	-0.32192
20	부천시	-1.2637	부천시	-0.42224

2. 평택시의 도시경쟁력 평가

평택의 도시경쟁력 순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먼저 도시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살펴보면 가중치를 부여하든 하지 않던 20개 도시 중 6위로 전반적인 도시경쟁력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부문별 순에서 물리적 기반 경쟁력은 20개 대상도시 중 4위, 경제적 경쟁력은 3위로 매우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평택시의 산업경제부문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본 평가의 경쟁력 지표에서는 평택항이나 KTX 역사 등 중요한 산업 인프라 시설이 평가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나 2011년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신규입주 등 초대형 경제적 투자가 평가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평택의 물리적 기반과 경제적 경쟁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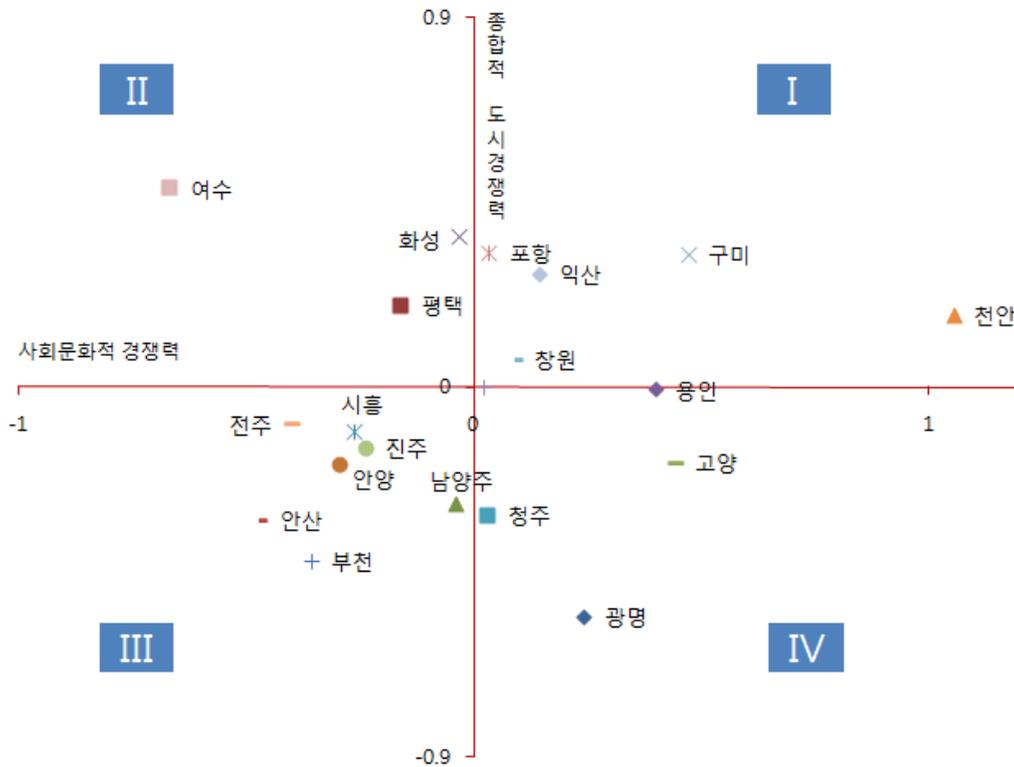
그렇지만, 사회·문화적 경쟁력은 20개 도시 중 19위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평택시는 산업·경제적 차원에서는 비교대상 도시들 중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



하고 있지만, 도시의 삶의 질 차원에서는 경쟁도시에 비해 취약한 여건을 가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평택시의 고유한 문제일까, 아니면 경제성장에 주력해 온 중소도시들의 공통된 문제일까? 종합적 도시경쟁력과 사회문화적 경쟁력의 불균형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양자를 교차 분석해 보았다. [그림 5]와 같이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I 유형은 종합적 도시경쟁력과 사회문화적 경쟁력을 겸비한 균형발전 도시들로 천안, 구미, 익산, 포항, 창원 이 여기에 해당한다. II 유형은 종합적 도시경쟁력은 강하지만 사회문화적 경쟁력은 약한 불균형 발전 도시들로 화성, 평택, 여수가 포함된다. III 유형은 종합적 도시경쟁력과 사회문화적 경쟁력 모두 약한 저발전 도시들로 시흥, 진주, 안양, 남양주, 전주, 안산, 부천 등이다. 하지만 남양주는 사회문화도시에 접근하고 있고 화성은 균형발전도시에 근접해 있다. IV 유형은 사회문화적 경쟁력은 강하지만 도시경쟁력은 약한 사회문화 도시로 용인, 고양, 광명, 청주가 여기에 속한다. 이들 중에서 용인은 균형발전도시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 5] 종합적 도시경쟁력과 사회문화적 경쟁력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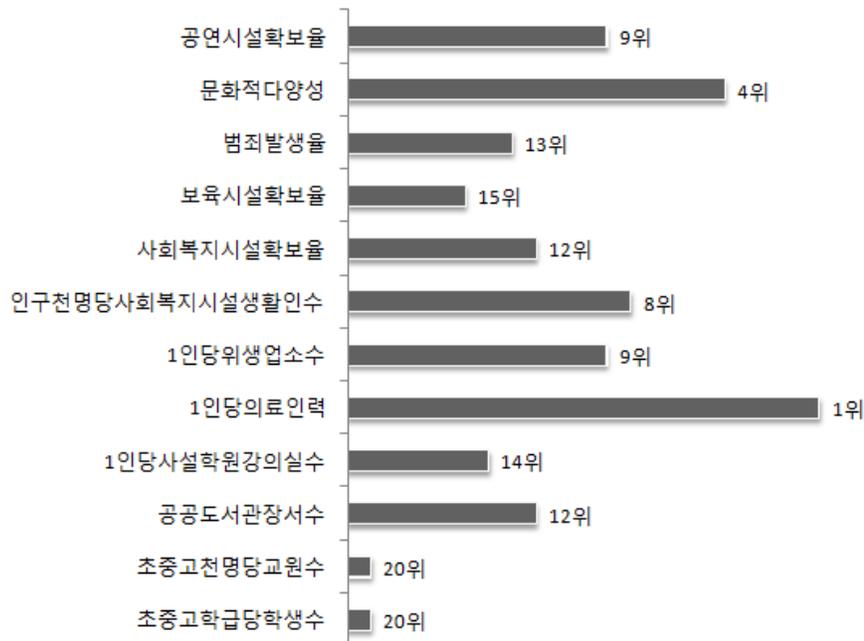
한편, 이러한 분석을 통해 사회문화적 경쟁력은 종합적 도시경쟁력의 결정적 요인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종합적 도시경쟁력의 순위와 상관없이 도시들의 사회문화적 경쟁력은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평택시의 불균형적 도시경쟁력은 신생 산업



도시의 성격 때문으로 평가할 수 있다. 종합적 도시경쟁력과 사회문화적 경쟁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I 유형 도시들은 모두 일찍부터 지역 경제산업의 중심지로 개발되어 온 도시들이다. 반면에 평택은 화성과 같이 90년 이후 수도권 산업도시로 개발되어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회문화적 여건이 개발될 여지가 적었다고 평가된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취약한 평택시의 사회문화적 여건은 무엇일까? 분명히 평택시의 모든 사회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세부지표를 살펴보기로 하자. [그림 6]은 사회·문화적 경쟁력의 세부지표를 기준으로 한 경쟁력 평가결과이다.

[그림 6] 평택시의 사회·문화적 세부지표별 경쟁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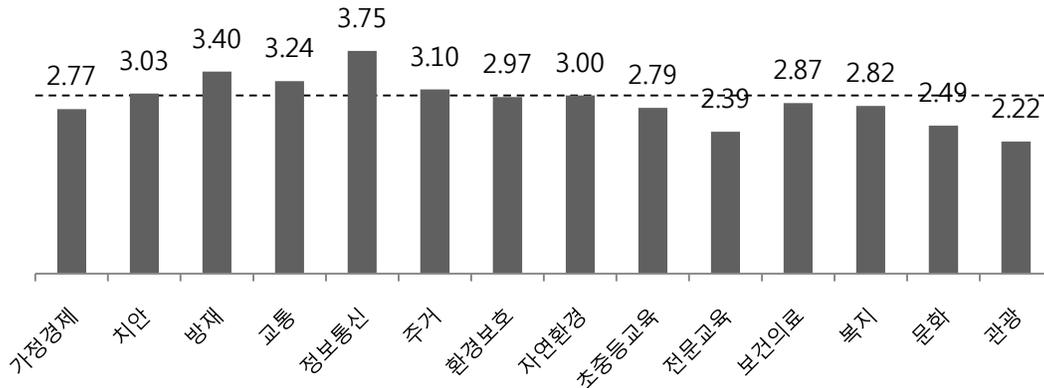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평택의 경우 복지 및 문화지표도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나, 특히 공교육지표들이 비교대상 도시들 중 최하위권에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1인당 의료인력, 문화인종적 다양성 등의 지표에서는 상위권에 있다. 결국, 평택시의 초·중·고 공교육 여건(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와 학생 천명당 교원 수)이 다른 도시들에 비해 더 취약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회문화적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다른 복지와 문화 여건들도 평택시의 종합적 경쟁력 순위에 비해 낮은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은 평택시의 취약한 사회·문화적 여건은 지역 삶의 질 여건에 대한 평택시민의 만족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0년 평택시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 삶의 질 여



건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사회문화적 여건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보통(3점) 이하로 지역주민들도 여기에 대한 불만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검토되지 않은 관광(2.22)과 전문교육(2.39)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그리고 문화여건(2.49)에 대한 주민만족도 역시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다음으로 초·중·고 교육(2.79)과 복지시설(2.82)에 대한 만족도도 3점 미만의 낮은 평가를 받았다. 나아가 평택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여건에 대해서도 경제여건(30.2%) 다음으로 문화관광 여건(17.5%)이 거론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이근수 2010). 이와 같이 평택시의 사회문화적 기반은 객관적 지표인 도시경쟁력 차원에서 취약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주관적 인식 차원에서도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사실은 평택시의 도시발전을 위한 우선적 정책 과제의 설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그림 7] 평택시의 삶의 질 여건에 대한 주민만족도



출처: 이근수(2010).

V. 결론

이상의 분석을 통해 평택시의 도시경쟁력은 양적인 성장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질적 성장은 정체되어 있는 도시개발이 불균형적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지역개발사업의 추진과 함께 수도권 산업입지의 하향이동 현상과 더불어 평택시의 도시기반이나 산업경제여건은 향상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사회문화적 여건에는 그에 동반하여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의료부문이나 문화적 다양성 측면에서는 강점이 있고 사회복지부문도 우려할만한 위기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학교육이나 국제학교 등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강점이 될 수 있는 교육여건이 이 분석에서 다루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미군 및 그 가족의 유입 확대와



삼성전자나 LG전자 입주에 따른 고급인력의 유입에 부수되는 사회문화적 파급효과도 기대된다. 따라서 수치화된 평택시의 사회문화적 경쟁력 수준은 현실을 과소평가한 것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최소한 도시의 물리적 기반이나 경제적 경쟁력에 비해 사회문화적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들 사회문화적 지표부문의 여건들이 다른 도시들에게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는 점도 분명하다. 따라서 평택시가 보다 균형 있는 도시발전과 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 보건·복지, 문화여건 등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평택이 사회·문화적 경쟁력에서 최하위에 머무르게 하는 주원인으로 작용하는 공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정책적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평택시 정도의 중소도시가 모든 도시여건을 다 갖추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또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취약한 부문을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하지만 이를 위한 실천적 전략은 평택시의 경계를 넘어 광역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 평택시가 제시하고 있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도시'의 비전과 이를 위해 '평택시가 엄마가 되고 복지사가 된다'라는 슬로건 하에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강조점을 두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하게 설정된 시정운영방향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이러한 시정목표와 비전이 실질적인 정책으로서 선택되고 집중적으로 집행되어 축적될 때, 평택의 강점인 물리적,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교육, 보건의료, 복지, 문화 등의 질적 성장이 균형을 이루면서 보다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성장할 것이다. ■



주(註)

- ¹ 2009 년 현재 평택시는 제조업 4 대 특화업종으로 전자장비, 자동차, 기계장비, 화학/플라스틱이 있으며, 자동차와 화학제품은 경기도내 비중이 10%를 넘는 수준이다(김군수 2011).
- ² 표준화점수는 해당도시의 각 지표의 값을 해당지표의 도시들의 평균값으로 뺀 다음 표준오차로 나눈 값이다. 다시 말해, 각 도시의 지표와 그 지표의 평균과의 거리를 표준오차로 나눈 값이다.
- ³ 이를 위해 경기개발연구원(2008)의 도시경쟁력 평가연구를 위해 전문가조사를 실시하여 산출한 가중치를 원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분야별 가중치는 도시기반 0.3167, 도시경제 0.3861, 도시 삶의 질 0.3028 이다.
- ⁴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가중치가 높은 도시경제 부문의 경쟁력 차이 때문이다. 다시 말해, 다른 부문에 비해 가중치가 높게 설정된 도시경제 부문의 경쟁력이 높은 도시의 경우에는 동일 가중치의 결과보다 전체 경쟁력이 높게 평가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강승호, 2007, "한중 양국의 주요도시 경쟁력 평가",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0(3).
- 강승호, 2008, "동북아 주요도시의 경쟁력에 관한 비교", <동북아경제연구> 20(1).
- 강승호 · 김중엽, 2009, "다차원 분석법을 이용한 인천 도시경쟁력 비교 분석",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2(3).
- 권창기 · 정현욱 · 박선영, 2008, "우리나라 도시경쟁력 평가연구" . <국토연구> 58(3), 국토연구원.
- 김군수, 2011, <삼성전자유치에 따른 평택지역경제 파급효과와 대응전략> , 경기개발연구원.
- 김병수 · 여홍구, 2010, "우리나라 도시의 유형별 기능특성 비교", <국토지리학회지> 44(4).
- 김원배 외, 2007;
- 김정호, 2007, "도시경쟁력 제고방안", <대한부동산학회지> 25.
- 김중표, 2009, <경상북도 도시경쟁력 평가 기초연구> , 대구경북연구원.
- 김현주 외, 1997, <세계도시경쟁력 비교> , 삼성경제연구소.
- 대한국토 · 도시계획학회(2001
- 박재룡 외, 1997, "도시경쟁력 평가지표의 개발방향", <도시정보> 8, 대한국토 · 도시계획학회.
- 이근수, 2010, <평택시 지역발전과 삶의 질 평가> , 동아시아연구원



- 이상대 외, 2008, 《경기도 도시경쟁력 평가 및 문제점진단》, 경기개발연구원
- 유재윤 · 조판기, 1996, 《도시경쟁력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 임병호, 2007, 대전의 도시경쟁력 평가 및 강화방안 연구》. 대전발전연구원.
- 임병호 · 이재우, 2008, “전문가 설문에 기초한 도시경쟁력의 모의적 평가”, 〈국토계획〉 43(3), 대한국토 · 도시계획학회.
- 임원배, 1997, “도시경쟁력의 개념과 강화전략의 틀, 〈국토〉 1997년 11월호.
- 임창호, 1993, “21세기를 향한 신대도시 공간구조론: 효율성, 형평성, 쾌적성 그리고 지속성,” 〈국토계획〉 28(4), 대한국토 · 도시계획학회.
- 최유진 · 홍준현, 2007, “도시경쟁력 관점에서의 통합시 유형화에 관한 연구,” 〈국가정책연구〉 21(1).
- 한국능률협회, 1999, 《한국의 도시경쟁력 평가에 대한 연구》.
- 황영우 · 류태창, 2003, 《세계도시 부산을 향한 자매도시와의 경쟁력 분석에 관한 연구》, 부산발전연구원.
- 행정안전부, 2010, 《한국도시통계》.
- 경기통계연보 및 광역자치단체 통계연보.
- Lever Lever, W. 1993, Competition within the European urban system, Urban Studies, 30(6).
- Michael E. Porter, 1990,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New York: The Free Press.



필자약력

이곤수(李坤洙)는 동아시아연구원 거버넌스연구팀 선임연구원과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동국대학교 지역정책연구소 박사후연구원과 선임연구원,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객원연구원,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대구대학교 연구교수 등을 역임했다. 최근 저작으로는 《변화하는 유권자 4》(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11, 공저), 《세계화 제2막: 한국형 세계화의 새 구상》(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10, 공저), “사회적 위험과 위기대응적 사회정책의 평가”(2010), “Economy President? Exploring Determinants of Presidential Approval”(2010), “6.2 지방선거의 현직효과: 경기도와 경상남도 도지사선거의 비교 분석”(2010) 등이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사회정책과 거버넌스 연구이며, 또한 평택지역발전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김병규(金炳圭)는 대구대학교 연구교수를 거쳐 2012학년도부터 안동대학교 행정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될 예정이다. 미국 켄터키대학에서 정책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농촌공사, 우정사업본부, 한국연구재단 연구들 수행하였으며 지역경제부 지역기술지원정책사업의 평가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최근 논문으로는 “Second-Order Devolution and the Implementatio of TANF in the U.S. State”(2010), “지방정부의 정치적 특성이 사회복지지출에 미친 영향분석”(2009), “Estimating Payment of Farmland Reverse Mortgage and Policy Consideration”(2010) 등이 있다. 주요 관심사는 도시 및 복지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 정부간 관계론, 계량분석 등이다.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 동아시아연구원(EAI)은 2008년부터 미군기지 확장이전과 함께 한미동맹의 상징적 도시가 되고 있는 평택시와 함께 “뉴평택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미동맹의 비전과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당면과제의 성공적 해결을 위한 전략과 정책을 제시하고, 평택시가 한미 양국의 공동가치가 실현되는 평화와 번영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본 연구 보고서는 동아시아연구원 거버넌스연구팀의 “2011 뉴평택 프로젝트”의 결과물로서 정책결정 및 학술연구, 각종 교육사업에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보고서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인용할 시에는 출처와 저자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연구원 홈페이지 [EAI 출판]과 각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해 주십시오.
이곤수 거버넌스연구팀 선임연구원 Tel. 02 2277 1683 (내선 106) ksyi@eai.or.kr

